

圖書館이 있는 나라

李 仁 浩

(서울대학교수·史學)

讀書室 밖에 없다

몇해전인가 전주 부근에서 인삼을 재배한다는 분이 내 연구실엘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인삼 재배법의 개량을 위해 10년 가까이 있는 재산을 통틀어 실험을 해 왔는데 소련에서는 이미 그 방면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는 말이 들리니 소련 과학원에 직접 문의해 볼길이 없을까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인삼재배문제를 가지고 인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나라에 관해 무엇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생명부지의 사학자를 찾아왔을까.

아직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내 앞에서 전개된 것이다.

물론 소련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인삼을 취급하는 큰 기업체나 연구소 등에서 그분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비단 인삼 재배뿐만 아니라 생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자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내 국외에서 연구되었거나 계속하여 새로 나오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집합소 역할을 하는 중앙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교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 정부고 시민들이고간에 별로 제대로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화를 아는 민주시민이며 경제적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속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들의 딱한 일면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서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독서실이지 도서관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사정이 좋지않은 우리에게도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본래 생명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짜임새있게 갖추고 있는

나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열람실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시급한 情報센터

축적된 지식이나 새로 흡수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학교 다닐 때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럭저럭 일생을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오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각개인이 머릿속에 일일이 축적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개인의 財力으로 구입해서 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기초지식을 심어주는 것 이외에 교육이 해야하고 또 오로지 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한 지식을 그때 그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각분야의 전문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도서관에는 자료뿐 아니라 자료를 입수 관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전문가로서의 司書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司書는 자기의 담당분야에 관한 다른 전문가에 못지 않게 박식하고 최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主題에 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제일 먼저 찾아가야할 사람이 司書인 것이다.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의 독서需要에 적합하게 꾸며진 일반 도서관에서부터 각급 학교 附設 도서관 분야별 전문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전문도서관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들 도서관은 자기 그 기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서관들은 개인이나 個別기관에 의해 자기들의 목적과 제력에 부합되게 꾸며지고 운영되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식이 이미 특정난 지식계층의 독점물이 될 수 없는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이런 모든 잡다한 도서관과 연구기관 정보센터 등을 서로 연결시키고 보완해주는 中央圖書館 체계의 수립과 운영이다.

허파와 심장의 기능

東西古今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 바로 중앙도서관이어야 하며 국립 중앙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는 못한다해도 적어도 어느 통로를 통해 어디에 가면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가하는 정보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생활의 知的 정신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앙도서관의 기능은 심장의 기능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학문적 현실은 심장이나 허파가 거의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계속 수혈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말미적 기능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정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전문분야별 자료를 갖춘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私費를 들여 외국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해 와야만 碩士학위 수준 정도의 연구논문이라는 것을 겨우 하나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인문사회 분야의 전반적인 실정이다.

그렇게 어렵게 연구결과가 나온다해도 연구 간행물이 철저히 수집 분류 비치되는 도서관 조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死藏되고하는 예가 많다. 막대한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구입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하였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으려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간에서 어쩔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서글픈 풍조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국가 전체로 보나 국민개개인으로 보나 얼마나 큰 낭비의 악순환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認識부터 달라져야

중앙도서관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물론 단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발전을 도모해나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知的 人力과 財力의 낭비를 가져오는 하루살이식 삶의 악순환에서 탈피하고 외국에 대한 문화적 더부살이 신세를 면하며 우리 자체의 지적 기반을 수립해나가려면 이것은 하루 속히 이룩되지 않으면 안될 작업이다.

중앙도서관체계의 수립이란 모든 자료가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에 관한 목록의 작성과 비치 그리고 세계각국의 큰 도서관과의 정보교류 통로의 수립 도서목록과 전문직 司書의 활용을 통한 열람자 서비스 체계의 확장등은 우선 그리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고서도 중앙도서관체계의 수립을 위해 착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들이다. 돈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전문가적 자질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최근 중앙청 청사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용단을 보였다. 南山으로 유배당한 국립도서관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명실공히 국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실속과 명분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